

수업 혁신을 통해 꿈과 사랑을 심는다 '변산서중학교'



진동나비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학생



아우야, 과학이랑 놀자, 함께 가자



나만의 자동차 스케치하기



사랑빵 만들기
평생교육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변산반도, 해넘이가 아름다운 이곳에서 꿈을 키우며,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실천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혁신학교, 변산서중이 있다.
해맑은 학생들의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학교, 농어촌 작은 시골마을 동네 한 바퀴 담소를 나누며 걷던 마실길의 정겨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따뜻한 학교다.
'즐거운 교실, 따뜻함이 묻어나는 혁신학교'에는 비전을 가진 리더와 그 꿈과 뜻을 알아주며 함께하는 깨어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다.
변산서중학교의 혁신은 아주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겨온 가치를 더욱 철저히 하는데서 출발했다.
'길게 보고 두뼘두뼘 가자', '설익었는데 두깍을 열고 밥맛을 논하지 말자'며 너와 내가 함께 우리의 문제를 토론하며 즐겁게 일하는 것이 행복한 변산서중을 만드는 핵심이다.
본지는 이에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변산서중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현대차와 함께 꿈 키우는 '미래자동차 중점학교 프로젝트' 변산서중-변산초-격포초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또래 학습'

△너네는 앉아서 수업하니? 우리는 움직이면서 공부한다!

변산서중학교(교장 김두용)는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업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변산서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자동차 중점학교 프로그램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 관련 교과 융합수업을 통해 교실문화를 바꾸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변산서중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중점학교'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 학기 동안, 자동차에 관련된 지식 습득, 현장체험학습, 다양한 교구 및 활동지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진로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도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회, 과학, 기술가정이 함께하는 교과 융합 수업으로 운영되면서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노하우, 아이들의 반응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첫 수업에서 아이들은 직업카드를 통해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하고 각각 5명씩 1조로 팀을 구성했다.

먼저 팀을 이끌어갈 팀장을 정하고 팀장의 능력을 발휘해 인재를 스카우트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디자이너, 자동차 공학자, 마케팅 담당 등을 뽑았으며, 구성된 팀은 ID카드를 만들고 팀 로고를 제작했다.

아이들은 정말 자동차 회사에 직원이

된 것처럼 모두가 진지하고 열심히 했다.

수업을 통해 2030년 후의 나의 미래도 그려보고, 친구에게 어울릴 것 같은 직업도 추천해주면서 이미 사라진 직업과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직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이런 시간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우리의 일상(지구온난화)과 자동차의 관계는 물론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성남 잡월드 진로체험학습

학생들은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 내에 있는 현대자동차관을 방문해 모터 스포츠센터, 고성능차 연구개발센터, 고성능차, 디자인센터, 로봇공학 연구소를 체험했다.

또 체험관들에서 레이싱 게임 및 간단한 자동차 정비 등을 체험해보았다.

이 외에도 심리검사, 진로강좌, 현대자동차 광고 전략에 대한 특강도 가졌다.

"학생들이 미래자동차학교 진로체험 학습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를 갖게 됐다"면서 "자신들의 흥미와 재능을 알아보게 돼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에 참석한 3학년 학생은 "매 시간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며 "내가 직접 디자인 한 자동차를 입체적으로 클레이모델링 해보니 진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 재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빛날 수 있던 기회'

수업을 진행했던 기술교과 교사는 "교

과융합 수업시간은 어찌 보면 막연한 것 인지도 모른다. 기존의 학교 교육의 틀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인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에서 공부의 의미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새롭게 되찾고 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회과 교사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과목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생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찾고, 미래의 꿈과 연결시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아이에게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모든 아이들이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수업혁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산서중-변산초-격포초가 함께 운영하는 멘토링 또래 학습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역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지역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혁신교육의 걸음마를 내디딘 지 1년, 이제 수업혁신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학생과 교사가 한마음으로 손잡고 지역사회 초등학교로까지 전해지고 있다.

변산서중 과학선생님과 1학년 학생들이 변산초, 격포초를 방문해서 '우리는 한가족, 사랑 안에서~하나 되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의 정을 돈독히 하고, 멘토링 또래학습으로 눈높이를 같이해 생활과학을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는 공동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변산서중학교 전경

수업을 진행한 학생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태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진동 나비를 만들었고 실제로 움직여 보이자 교실은 희망과 탄성으로 열기가 가득했다"고 전했다.

격포초 학생은 "중학교 선배들이 진행해 편안한 수업이 됐고, 우리들 눈높이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더욱 흥미진진했고 듣기가 좋았다"며 '우리는 한가족, 사랑 안에서~하나 되는 우리' 수업 기회가 또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업을 진행한 변산서중 학생들은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지만 보람을 느꼈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하며 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업을 계획한 과학 선생님은 "수업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과 도와주는 학생으로 철저히 역할 분담을 통해 멋진 수업을 후배들에게 선보인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견스럽다고 강조했다.

변산서중에서 불기 시작한 수업혁신이 봄바람을 타고 지역학교에까지 전해져 선후배가 서로 아끼며 존중하는 계기가 됐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스스로 배우는 울림이 됐다.

△'향긋한 빵 냄새가 진동하는 사랑' 만들기 평생 교육'

매주 목요일 향긋한 빵 냄새가 변산의 노을을 자극한다.

혁신학교인 변산서중은 변산면 소재 3개 학교(변산서중, 변산초, 격포초) 학부모, 지역주민, 지역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 사랑빵 만들기 제과제빵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님들은 농사지는 양파를 가져와서 양파빵을 만들기도 하고, 횃집을 운영하시는 학부모님은 죽을 싸워서 나눠먹는 등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빵 만들기 제과제빵 교육은 농어촌 생활, 자녀 진로 문제 등 지역사회 내 갈등 등을 해소하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정성으로 만들어진 따뜻한 사랑빵은 3개교 학생들에게, 지역 내 경로당 및 소외계층에게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사랑빵 만들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는 "매년 다양한 사랑빵을 만들다보니, 관련 기술도 많이 늘어 이제는 혼자서도 아이들의 간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해 변산서중의 사랑빵 만들기 제과제빵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또한 변산초등학교 학부모님은 "국적이 달랐던 친구들, 젊은 엄마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매회 종류가 다른 빵을 만들고, 열심히 반죽했던 빵이 오븐에서 노랗게 익어갈 때면 우리를 미소 짓게 했고, 어느덧 하나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렇듯 변산서중의 사랑빵 만들기, 제과제빵 만들기는 지역사회 소통의 장이 되었고 빵 속에 추억과 사랑을 담은 지역교육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다.

△'변산에 부는 책바람, 書對 공감'

우리학교는 혁신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변산에 부는 책바람 書對 공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면 학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하

여 함께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書對 공감은 시, 소설, 수필, 역사서 등의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준비하여 차와 독서, 담화를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돼 있다.

평소 누리지 못했던 책 읽는 여유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書對 공감에 참여하였던 학부모는 "독서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가정에서부터 바람직한 자녀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전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다보니 학교를 더 알게 됐고, 학부모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지역공동체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변산서중학교는 2017년 혁신학교로 지정돼 '수업혁신과 따뜻함이 묻어나고 지치문화가 꽃 피는 학교'를 위해 전 교직원이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학생들 하나하나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기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쁜 마음 동산과 명상 숲 조성으로 생태적 학교 환경이 구비된 '자연과 더불어 미래를 향하는 아름다운 학교'임을 자부합니다.

현재는 80여 명의 학생과 17명의 교직원인 21세기 주역인 학생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학교 혁신을 위해 뚝뚝뚝뚝 걸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름다운 학교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를 위해 학생들은 현재를 즐기며 행복한 미래를 꿈 꿀 것이고, 교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의 그 꿈이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해님이 무렵 마실 나간 사람이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돌아오듯, 학생들의 고운 꿈 보자기에 영글어가는 꿈을 채울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가 한마음으로 손잡고 마실길을 걸어가는 학교, 변산서중입니다.

/제공=변산서중학교